

컬러이상의 변혁물고을 디지털TV

- 미·일 중심으로본 지상파 디지털 현황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윌리엄·케너드위원장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나로그의 세계에 머물러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자세이다. 미국에서는, 21세기초두에 본격적 디지털TV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 (讀賣新聞 98.11.29일자)

미국, 2006년 완전 디지털화

1998년11월1일을 기하여 전미 주요도시 42개 TV 방송국이, 지상파에 의한 디지털 방송을 개시했다. 컴퓨터나 CD에이어, 안방TV에도 디지털기술이 침투되고 있다. 디지털수상기의 보급등에 시간이 걸릴 듯하나, 21세기초두에는 본격적인 디지털TV시대가 올 것 같다.

미국의 전과행정을 담당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97년 4월, 미 4대네트워커에게 디지털파면허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또한 '99년 5월안에 10대 도시에서, '99년11월안에 기타 30개 도시권에서도, 디지털방송을 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06년에는 현재의 아나로그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이행하여 아나로그면허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케이블(유선)TV도 도시부를 중심으로 전미국 가정의 67%에 보급되어, 유료로 수십채널의 프로그램을 흘리고 있는 외에, 디렉TV등 위성 디지털 방송도 이미 약 8백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지상파TV의 임팩트는 이와는 비길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번의 디지털TV방송 개시는, 뉴욕

이나 워싱턴등 일부 대도시에서 선행 실시된 것으로서, 종전의 아나로그파도 병행방송되고 있다.

2억4천만TV, 10년안에 바뀌어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개시는, TV관련산업에게는, 말하자면 인류를 달에 보내는 정도의 역사적 사건」…… 전기메이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비자가전제조사협회」의 게리·샤피로 사무국장은 약간 들뜬 표정으로 말한다. 전미국 가정의 98%에 보급되어 있는 2억4천만대의 TV수상기가 앞으로 채 10년도 못되는 사이에 디지털로 교체되어야 하는가 하면, 디지털·비디오도 필요하게된다. 「컬러TV 출현이래의 대변혁」으로 일컬어지는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나로그파가 디지털파로 바뀌면, 하나의 주파로 송신할 수 있는 정보량이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이때문에, 화질이 현격하게 선명한 「고품위TV(HDTV)」가 가능해지는 외에, 화질이 종전보다 약간 양질인 「표준품위 TV(SDTV)」의 경우, 한 주파로 6개전후의 채널을 방송할 수도 있다.

미전역에서 5년동안 설비개체에 160억\$ 투입계획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TV국측은, 4대네트워크등 전미국의 1,576개방송국이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총액 약160억\$(약1조9천억엔)을 투입하여 디지털방송설비의 정비를 추진」(전미방송자협회 존·안하트 홍보담당)할 계획이다. 텍사스주 등에 17개방송국을 거느리고 있는 비로사(본사·댈러스)의 밥·터너 부사장은, 「5년계획으로 약1억2천만\$(약140억엔)의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디지털방송에 필요한 기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새로운 시대에 적극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가전업체나 방송국의 뒷받침을 얻어 HDTV방송 실험시설로 '96년 설립된 모델국 WHD·TV(본사·워싱턴DC)에서도, 「HDTV의 본격화시대를 바라보고 높은 기술실험을 쌓아왔다」(브로스·밀러사장)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아직은 비싼 수상기

그러나 전미국 가정에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미 ABC방송은 '98년11월 1일밤, HDTV제1호로, 디즈니영화의 명작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을 방영했다. 그러나 이것을 디지털수상기로 선명화면으로 본 가정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디지털방송 전용TV는 5천~1만\$(약60만엔~120만엔)로 고가일 뿐 아니라, 아직은 한정된 종류밖에 판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내용의 충실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우선은, CBS는 프로풋볼, NBC는 인기토크쇼를 HDTV로 방영할 방침이지만, 스폰서측에는 HDTV보다도

SDTV의 다채널로 인기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도 많다. 다채널의 일부를 유료영화로 하거나, 인터넷 접속에 사용하는 아이디어 등도 있어, 디지털의 높은 기능의 활용방법도 현단계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디지털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된다면, 시청자도 디지털TV를 사들이게 되고, 가격도 내려간다. 시청자가 늘어나면, 스폰서도 생기게 되어, 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제작도 할 수 있게 된다」(존·안하트씨)고 관계자들은 의욕적이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윌리엄·케너드위원장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날로그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자세이다. 미국에서는, 21세기초두에 본격적 디지털TV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讀賣新聞 98.11.29일자)

일본도 2000년고비로 디지털화

일본도 2000년을 고비로, TV방송이 크게 바뀐다. CS(통신위성)방송에 이어, BS(방송위성)방송도 디지털화되고, 가장 최근한 지상파에서도 시험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화질, 다채널, 쌍방향」으로의 길을 여는 디지털 화는 세계의 추세이나, 그 「전야」인 올해, 방향을 잡아야 할 과제는 많다.

매년12월의 NHK 회장 회견에서는, 전례대로 「NHK10대뉴스」가 발표된다. 지난해말, 海老澤 勝二 회장은 방송의 디지털화를 톱으로 들고 「디지털시대의 움직임이 가속화된, 커다란 고비가 된 해」라고 말했다.

디지털기술은 이미, 생활속에 스며들고 있다. 최근에는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도 파급되고 있는 이

물결은, 방송분야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영상이 나 음성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면,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비약적으로 늘게 되므로, 다채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우선, 2000년말안에 개시될 BS디지털방송에 진입할 진용도 정해 졌다. 고화질의 HDTV(고정세도 TV)가 중심이지만, 현행과 동등한 SDTV (표준 TV)라면, 3채널로 분할하여 방송해도 된다. 우정성은 지난11월, 민방 키국의 계열5사와, 선행하고 있는 WOWOW를 HDTV방송사업자로 인정 한바있다.

디지털화의 선구는, 전문채널의 집합체인 유료방송의 CS방송이다. '96년에 선두를 끊은 「퍼펙TV」는 작년봄, 「JSkyB」와 합병하여, 「스카이퍼펙 TV」가 되었다. 라이벌인 「디렉TV」와 합치면 3배채널 가까이 되지만, 가입건수는 약124만에 그치고 있다. 수신세대가 1,300만으로 추정되는 BS방송과는 아직 비교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의 BS방송 수신자가 다채널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전용 애답터나 수상기가 필요하게 된다. 사꾸라총합연구소 西正상석주임연구원은 「민방각국은 전부터 BS방송진입을 강하게 희망해왔으나, 프로그램편성등 필요한 사항은 어느것하나 정해진 것이 없다. 올해는 보급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CS진영쪽도, BS디지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면, 시민권을 얻기힘들 것」으로 본다.

CS·BS방송은, 새로이 수신기기를 구입하면서까지 보고싶어하지 않는다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국에 골고루 보급되어있는 지상파의 경우는 다르다.

HDTV 1 채널인가, SDTV 3채널인가는 미정

우정성의 「지상디지털방송간담회」는 '98년10월,

지상파 스케줄을 제시했다. 2000년부터 關東권에서 시험방송을 시작하여, 關東, 近畿, 中京권에서는 본 방송을 2003년말안에, 기타 지역에서는 2006년까지 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1월에는, 도쿄타워로부터의 송신실험이 개시되었다.

지상파의 디지털화는 98년가을, 영국과 미국이 제 빨리 시작하였다. 스웨덴 이나 스페인등이 뒤를 이을 예정으로, 우정성은 「국제적조류에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지상파의 경우 HDTV 1채널로 갈 것인지, SDTV 3채널로 갈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PC의 기능을 담을 수 있으므로, 날씨예보나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시청자가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쌍방향성 이 점도 있다. 화면이 보기 힘들어지는 전파장애는 없어지고, 차안에서도 흔들 림이 없다.

「컬러TV이래의 기술혁신」이라 일컬어지는 연유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점이 있다. 컬러화때에는, 흑백TV로도 프로그램을 계속 볼 수 있었으나, 이번 경우는, 수신하기위해 전용기기를 사지않으면 안 된다. 우정성에서는 시청자를 보호하기위해, 디지털 방송과 병행하여 현행방송을 계속하고, 그 종료시기를 2010년으로 잡고 있다. 즉, 현재의 TV 그대로라면 약10년후에는 아무것도 비추지않게 된다.

일본의 세대수는 약4500만으로, 한집에 평균 2대 이상의 TV가 있으므로, 1억대 전후의 교체구입이 전망된다.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홈비디오도, 지금 그대로는 새로운 메리트를 얻을 수 없다. 이에따른 부담은 모두 시청자의 몫이다.

上智대학의 音好宏강사(미디어론)는 「어떻게 보급시킬 것인가하는 논의 뿐, 시청자에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무엇을 위한 디지털화인지, 방송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알기쉬운 디자인을 보여주지 못

[일. 방송디지털화스케줄(본방송)]

	'96	2000	05	10
CS	<p>▲퍼팩 TV방송개시</p>			
BS	<p>▲BS-4후발기 발사</p>			
지상파	關東・近畿・中京권 기타지역	<p>▲關東권에서 시험방송개시</p>		
CATV	<p>▲가고시마 유선 TV에서 개시</p>			

하면, 간단히 옮겨갈 수는 없다」고 주문한다.

NHK 3천억 · 민방6천억엔 소요

방송국측에도 상당한 부담이 들게된다. 중계소등에 대한 설비투자액은 NHK에서 3천억엔에 이르러, 올해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6천 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시산되고 있는 민방에서는, 1국당 30억엔에서 100억엔 전후라 한다. 100억엔이라는 액수는 宮城, 靜岡縣수준의 중견국 연간매상에 상당하므로, 도쿄키국에 비해 체력이 약한 지방국에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 수 있다.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에서는 「이 방대한 비용에 대한 논의도 없이, 스케줄만 독주하였다. 도입하더라도 새로운 CM수입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지방국간에는 『도저히 무리』라는 소리가 높아, 현행 방송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町田和男 · 기획부장)고 걱정한다.

BS방송에 민방각국이 진출하게되면, 한 주파로 전국방송을 할 수 있게 때문에, 종전의 네트워크의 역할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도, 지방국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전 · 일본TV부사장으로서는, BS신회사, 「비에스日本」의 漆戸 靖治사장은 「방송의 변혁기에는 키국의존이아니라, 자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벌어들일 수 있는 지방국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난시청해소등 이유로 CATV(유선TV)경유 지상파방송에 접하고있는 시청자는, 전체의 3할을 차지한다. 지상파의 디지털화 추진에 있어서는 CATV대책도 배재할 수 없다.

98년10월, 福井시에서 개최된 민방전국대회 심포지움, 패널리스트의 한사 람은 「시청자는 TV를 바꾸고, 방송국도 프로그램제작에서 경영까지 모든 수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디지털방송으로의 이행을 「민족대이동」에 비유했다.

이동할때의 교통수단은 누가 마련할 것인지, 그 요금은 얼마쯤인지, 이동 해갈곳은 도대체, 얼마나 매력있는 광경이 펼쳐있는것인지, 정작 요긴한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디지털화라는 뛰어난 기술성과를 살리기위하여, 행정과 방송계, 가전업체는, 시청자와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안될 때 인것 같다.(讀賣新聞 99. 1. 9 일자) ◆